⑦ 연합뉴스 │ < ▷ 대통령적인수위 정치 북한 경제 산업 사회 전국 세계 문화 라이프 연예 스포츠 오피니언 사람들 비주얼; >



Q

뉴스홈 | 최신기사

<월드컵축구> 허정무 "고비를 넘겼다"

송고시간 | 2009-04-01 22:50













이영호 기자 기자페이지



<월드컵 축구> 치우야 잘했다

<월드컵 축구> 치우야 잘했다

(서울=연합뉴스) 진성철 기자 = 1일 서울 상암동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벌어진 2010년 남아공월드컵 아시이예선 한국-북한전에서 허정무 감독이 결승골을 터뜨린 김치우를 격려하고 있다. 2009.4.1

zjin@yna.co.kr

(서울=연합뉴스) 이영호 기자 = "최종예선 통과의 고비를 넘었다"

허정무 축구대표팀 감독이 7회 연속 월드컵 본선무대에 진출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강조하고 나섰다.

허 감독은 1일 마포구 성산동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북한과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축구 아시아지역 최종예 선 5차전에서 1-0으로 진땀승을 거두고 나서 "굉장히 중요한 경기에서 이겨서 최종예선 통과의 고비를 넘었다"라고 환 하게 웃었다.



허 감독은 "선수들이 열심히 잘했다. 집중력을 갖고 서두르지 않으면서 경기를 잘 풀어나갔다"라며 "점점 팀이 좋아지고 있어서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됐다. 선수들이 자랑스럽다"라고 강조했다.

그는 이어 "전반전에 북한의 수비가 워낙 밀집돼 있어 공간이 나 오지 않았지만 끈질기게 골을 노리라고 지시했다. 굉장히 힘든 경기였다"라며 "전반에 볼을 가지고 지체했던 게 불만족스럽지 만 대체로 잘 풀어나갔다"라고 덧붙였다.

허 감독은 특히 "우리가 한 경기 덜 치른 상황에서 1위 자리에 올 랐다. 오는 6월 7일 아랍에미리트연합과 6차전 원정에서 본선행 진출이 결판날 것 같다. 하지만, 마지막까지 방심해서는 안 된 다"라고 강조했다.













핫뉴스 →

日 공주와 결혼한 대학 동기, 뉴욕 변호사 시 험 또 불합격

박진, 광우병 사태 때 美당국자에 "한국에 너 무 많은 민주주의"

여성 전용 교도소라는데...美서 동료 재소자 끼리 성관계 후 임신

"마지막 순간 마음 바꿨다" 2015년 파리 테러 범이 밝힌 '그날...

韓 육사 생도 영 왕립사관학교 첫 졸업...여왕 "양국...

프로야구 LG-SSG전 오심 내린 심판, 2군 강등...

기원전 2~3세기 마야 달력 파편 발견..."가장 오래...

한국 유튜버, 촬영 중 실수로 우크라 국경 넘었다 ...



이근호를 빼고 김치우를 투입한 전술에 대해선 "김치우를 교체

투입하고 나서 박지성을 최전방으로 전진시켰다. 밀집 상태에서 장신 공격수인 정성훈이 있지만 그동안 장신 선수로 재미를 못 봤다. 세트피스를 노리고 김치우를 넣었다"라고 설명했다.

그는 이어 "선발 투입한 이근호가 골은 비록 못 넣었지만 위치 선정과 돌파가 좋았다. 이근호의 플레이는 대표팀에 필요하고 스트라이커로서 좋은 점을 갖췄다"라고 칭찬했다.

한편 허 감독은 북한 대표팀에 대해 "처음부터 한 골 차 승부를 예상했다. 북한이 처음보다 점점 더 좋아지고 발전하고 있다"라며 "우리도 분발해야 한다"라고 강조했다.

그는 이어 북한 김정훈 감독이 판정문제를 제기하자 "코칭스태프는 항상 심판 판정에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. 우리도 물론 불만이 없을 수 없다"라며 "상대 감독의 말에 대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. 축구는 심판이 운영하는 것"이 라고 설명했다.

hom90@yna.co.kr

♂ 관련기사

<월드컵축구> 정대세 "한국은 정말 강팀"

<월드컵축구> 김치우, 허정무호 새 해결사(종합)

<월드컵축구> 박지성 "본선행 빨리 확정하고파"

-월드컵축구- 김치우, 북한 격파 결승골(종합)

<월드컵축구> '인의 장막' 걷은 세트피스

제보는 카카오톡 okjebo

<저작권자(c) 연합뉴스, 무단 전재-재배포 금지> 2009/04/01 22:50 송고

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콘텐츠	
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	

현장 영상 →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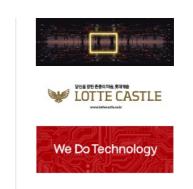
▶ 01:18

[영상] 압발 묶인채 두 눈만 멀뚱멀뚱...누가 학대했니 명상] 곡사포·수송헬기·장갑차...美, 꺼렸던 무기들 결국 우크라에

▶ 02:22

[영상] 미국 최고위급 키이우 방든 링컨 등 후보군"

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영상



에디터스 픽 Editor's Picks

● 영상

▶ 01:59

[영상] 윤석열, 안철수 '패싱' 질문에 "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"

● 뉴스

오늘 거리두기 해제 발표, 2년 1개월만 종료...마스

尹당선인·安위원장 만찬 회동..."공동정부 한치의 흔들림 없

尹 당선인 "韓, 위상 맞게 외교정책 강 화...美와더 강력한 동맹"

'검증의 시간' 시작됐다...한동훈, 청문회 준비 돌입

"'의학에 뜻' 정호영 아들, 학부 4년간 관 련과목 2개 수강"

댓글 많은 뉴스

김건희 여사 팬카페, '악성 댓글' 누리꾼들 경 ○ 142 찰에 고발

2 '유퀴즈' 尹당선인 출연 논란..."프로그램 취지와 ⊕ 65 안 맞아"(종합)

3 정호영 자녀, 경북의대 편입전 아버지 있던 경북 ☐ 61 대병원 자원봉사

4 두문불출 이재명, 이발·염색...조기등판론 속 활

5 문대통령, 손석희와 대담...靑 "임기 5년 소회 밝

뭐하고 놀까? ## 😝 →



















뉴스홈 최신기사 정치 북한 경제 산업 사회 전국 세계 문화 라이프 연예 스포츠 오피니언 사람들

비주얼뉴스 영상 포토 화보 #D 그래픽 **뉴스 상품** 프리미엄뉴스 뉴스리 인터넷맞춤형 보도자료 해외배포 보도자료 국사베포

테미벌뉴스 핫뉴스 톰뉴스 주요뉴스 긴급뉴스 단독뉴스 많이본뉴스 **출판물** 이매진 연합연강 영문연강 한국인물사전 단행본 월간마이더스

뉴스+ 이슈돋보기 팩트체크 재난포털 날씨 주요신문.톱뉴스사설 이시각.헤드라인 **광고** KTX.열차 AREX.공항철도 모바일 P.C.홈페이지 출판물

 모바일뉴스
 모바일앱
 모바일앱
 보도사진
 이미지
 그래픽
 동영상
 인물

외국어 English 中文 日本語 حربی Español Français **관련사이트** 연합뉴스TV 인포메스 한민족센터 K결정기회단(K-ODYSSEY) 채용 IR클럽 #홍

계약사/제휴문의

회사소개 윤리헌장 저작권규약 수용자권익위원회 모바일모니터링위원회 콘텐츠자문위원회 고충처리

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독자게시판 기사제보(02-398-3000) 사이트맵

연합뉴스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2길 25 | 등록번호 문화,나00009 | 등록일자 1980.12.29 | 발행일자 1980.12.29 | Tel. 02-398-3114

(C) [대표이사]성기홍 [편집인]조채희

Yonhapne